

[보도자료]**“초등학교 ICT 활용 교육용 콘텐츠 내용분석 및 성 인지성 제고 방안”**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김 인 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haza4122@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정 경 아 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27, 이메일: jkah@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2007년 『초등학교 ICT 활용 교육용 콘텐츠 내용분석 및 성 인지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수업과 가정에서 접하고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성 편견이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해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비 불균형과 성 고정관념에 근거한 역할과 활동 묘사 등이 7차 교과서보다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에듀넷과 각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여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남성 편향성 강해

- 2000년대 들어 초·중등단계에서 ICT 활용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은 8개 시·도교육청과 에듀넷에서 제공되고 있는 2,542차시 분량의 교육용 소

프트웨어를 성 형평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여성 등장인물의 비율은 개발진이 직접 기술·작성한 콘텐츠의 경우 41.0%, 역사적 사실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인용한 콘텐츠의 경우 16.2%에 그쳐 성별 불균형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성 등장인물의 비율은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 7차 초등 교과서의 여성 비율보다도 낮은 것이다.

- 교과별로는 의식주 중심의 가정생활을 주로 다루는 실과 교과와 여교사가 많이 등장하는 일부 과학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영어 등 거의 모든 교과에서 여성 등장인물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사회과 콘텐츠의 여성 비율은 23.5%에 그쳐 남성 중심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 연구원은 학생들의 역할모델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 중 여성 비율은 약 10% 남짓에 불과하여 여성 역사적 인물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 성역할 고정관념에 충실한 인물의 활동 묘사

- 등장인물의 성비 자체보다도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활동을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여성의 직업세계는 축소되고 여성의 활동 영역은 가정 및 가족을 중심으로 그려지는 반면, 남성의 역할과 활동은 사회인이나 직업인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 등장인물의 경우, 학습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며 대화를 주도하는 역할은 주로 남학생에게 부여되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 등장인물의 외모와 복장, 활동에서 나타난 성 이미지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것은 남성다움으로, 소극적이고 양전하고 단정한 것은 여성다움으로 정형화 될 수 있는데, 일례로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남성으로 그려지고 있고 여성은 때와 장소, 활동 목적에 관계 없이, 심지어 청소나 운동을 할 때도 한결같이 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 콘텐츠 개발자들의 인식 변화 필요

- 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보다 오히려 더 성차별적이고 성 정형적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첨단기술을 활용하였다고 해서 교육자료의 성 형평성이 저절로 뒤따라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용 콘텐츠의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성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개발진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연구보고서는 교육용 콘텐츠의 성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지침에 ‘양성평등 조항’을 포함할 것과 개발진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예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중앙 교수학습센터(에듀넷) 및 전국 16개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교육용 콘텐츠 담당자에 대한 교육, 학생이 중심이 되는 모니터링단의 운영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1983년 개원 이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을 담당해왔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 개발, 여성연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가족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